



권리를 되찾는 투쟁!

2020년 6월 16일. 자그마치 8년이다. 현대자동차는 독일 노동운동가를 해고하기 위해 8년을 노력했다. 오는 6월 19일, 독일 노동법원은 현대자동차 유럽기술연구소가 마르텐 베르쇼어(Marten Verschoore) 동지를 해고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린다.

마르텐 베르쇼어 동지는 2003년 3월 독일에 자리 잡은 현대자동차 유럽기술연구소(HMETC)에 디자이너로 입사한 이후 헌신적인 조합활동으로 종업원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번 재판은 동지를 현장에서 제거하려는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시도이다. 재판은 베르쇼어 동지를 해고하는 것이 목적인 한국계 초국적 자동차기업의 허위 고소에 맞서는 두 번째 법원 투쟁이다.

현대자동차의 공격은 마르텐 베르쇼어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독일 자동차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독일금속노조(IGM)에 대한 혐오에서 나온 것이다. 현대자동차 유럽기술연구소는 과거 지멘스 사측의 지원을 받아 세운 어용노조인 AUB를 띄워주며 대화도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유럽기술연구소는 2003년 현대·기아차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나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럽 자동차의 기술·품질·디자인 수준을 따라잡겠다는 두 개의 사업 목표를 아래 설립됐다.

제조산업 노동자 국제조직인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의 자동차산업 담당자인 게오르그 루테르트(Georg Leutert) 동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최근 15 년 동안 현대·기아차처럼 성장한 자동차 회사는 찾기 힘들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작업장에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유럽의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대자동차는 어용노조와 함께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평의회와 건설적인 대화에 응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을 해고하고 노동자를 위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안전확보와 과도한 잔업 요구 배제 등 노동자와 교섭하기 위해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을 적대하는 반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조합과 동등하게 대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

- 한국에서도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고, 그동안 대규모 파업 같은 단체행동을 통해서만이 지금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달성할 수 있었다.
- 한국과 중국 바깥의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 전체 10 곳 중 5 곳에만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 현대자동차는 인도 공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노동자와 충돌하자, 사측과 친밀한 세력인 제 2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
- 미국공장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며, 채용 시에도 노동조합 경력이 있는 노동자를 배제한다.

인더스트리올 발터 산체스(Valter Sanches) 사무총장은

"많은 기업이 ILO 의 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는 노동자에 대해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인더스트리올은 마텐 베르쇼어 동지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즉각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더스트리올과 한국 금속노조의 지도 아래, '글로벌 현대·기아 노동조합 네트워크'는 전 세계 현대·기아차 사업장 노동조합 활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현대·기아 노동조합 네트워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기본 협약'을 수용해 ILO 의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다.